

“제작까지 12년... 세계 1위 12일도 안 걸린 건 기적”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美 ‘고섬 어워즈’ 수상 영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고섬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징어 게임’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웰스트리트에서 열린 ‘제31회 고섬 어워즈’ 시상식에서 ‘40분 이상의 획기적 시리즈’(Breakthrough Series Long Format over 40 minutes)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무대에는 황동혁 감독과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싸이런픽처스 김지연 대표, 이정재, 정호연이 함께 올랐다.

트로피를 거머쥔 황동혁 감독은 “2009년 처음 이 대본을 썼을 때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며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이상하다고 했고, 이 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12년이 걸렸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혔다.

황 감독은 “이 쇼가 지구상에서 넘버원 쇼가 되는 데는 12일도 걸리지 않았다”며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9일 ‘제31회 고섬 어워즈’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주역인 황동혁(왼쪽부터) 감독, 배우 이정재, 정호연,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의 김지연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봐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황 감독은 소감을 밝히기 전에 “호연씨가 여기 올라오면 관객들이 발가벗고 있다고 생각하면 긴장이 덜 된다고 알려줬다”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머를 던

져 관객들을 웃기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이 수상을 한 부문에는 ‘더 굿로드 버드’, ‘잇츠 어 신’, ‘스몰 엑스’, ‘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더 화이트 로터스’가 후보로 올라 경쟁했다. /연합뉴스

새 시리즈 부문 최우수 연기상(Outstanding Performance in a New Series) 후보에 올랐던 이정재는 수상에는 실패했다.

이 부문에는 이정재를 포함해 10명의 배우가 후보에 올랐으며, 수상은 ‘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의 투소 엠데부, ‘더 굿로드 버드’의 에단 호크 2명에게 돌아갔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정호연은 ‘획기적 논픽션 시리즈’(Breakthrough Nonfiction)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미국의 독립영화 지원단체 IFP(Independent Filmer Project)를 후원하는 ‘고섬 어워즈’는 독립 영화를 대상으로 한 시상식으로 매년 뉴욕에서 열리며 올해로 31회째를 맞았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1억4천만 이상의 가구가 시청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시리즈인 만큼, 작품과 출연 배우들은 미국 방송사의 최고 권위 시상식인 에미상을 비롯해 연말 미국 방송 시상식 후보에 잇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박원영 선생 후손에 보훈청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이 지난 29일 광주 정부합동청사 1층 양한목실에서 독립유공자 훈장을 전수했다.

광주 출신인 오 박원영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박 선생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전라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기우만 의병장 휘하에서 참모로 활동했다. 광주회맹에 앞장서다 1896년 의병해산 이후 체포돼 숨졌다.

훈장을 전수받은 박씨의 고손자 박홍철(왼쪽)씨는 “유족들도 모르고 있던 고조부님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국가가 찾아주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종배 청장은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립유공자 훈장을 한 분이라도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신대 교육학습센터, 지음지교 결과 공유회 등 개최



동신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최근 대학 해인6관 강의실에서 교수자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인 ‘지음지교(知音之敎) 결과 공유회’와 ‘콜로키움(colloquium)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지음지교’는 교수들의 독서모임으로, 특별로 교육학이나 인문학 책 1권을 함께 읽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며, ‘콜로키움’은 시대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학습법 개발을 위한 교수들의 소규모 연구 모임이다.

〈동신대 제공〉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아이스팩 재사용 릴레이 캠페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가 최근 공공기관 아이스팩 재사용 릴레이 ‘미세플라스틱 OFF Green ON 캠페인’을 추진하고, 아이스팩 5120개(약 1500kg)를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에 기증했다. 캠페인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됐으며, 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농어촌공사·국민연금공단 등 광주·전남지역 5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공〉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2021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양로극 특집 다큐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열린채널 광주	00 학교 2021(재)	45 주라기킵스3	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동의보감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웃소매 붉은 끝동(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넷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50 불평해도 괜찮아 시즌2(재) 55 UHD 슨터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희망2022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담 제작			00 뉴스브리핑
[3]	30 어린이 동물티비	00 KBS 뉴스타임 10 마카앤로니(재) 30 TV 유치원	20 뽀빠뽀 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인 경교(재)	55 5 MBC 뉴스	00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청작동요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렛츠 고릴라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 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내고향 전파(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학교 2021	0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갓파더	3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통합뉴스룸 ET(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성싱!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상어 울리와 윌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게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5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워킹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빠뽀 뽀로로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문해력 유치원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5:25 클래스e	〈오프로드 대장정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아차곰바를 찾아서, 네뿔 돌고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09:00 시용	16:15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사골 할송령 3부 그곳에 가는 이유〉
09:15 봉구야 말해줘3	16:30 당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05 바닷가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55 XR 우주대기획 : 더 흠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일(음 10월 27일 癸未) ☎ 010-9790-8237

子 36년생 인연은 새로운 기대할 바는 못 된다. 48년생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60년생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72년생 눈앞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멀리 내다보라. 84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96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9, 62

丑 37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49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61년생 약간만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73년생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아야 한다. 85년생 징후가 좋으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97년생 처음부터 점검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0, 90

寅 38년생 복득이 늘어나니 즐거움을 더 하라. 50년생 전혀 이해 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62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74년생 길한 여건이 조성 되어야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86년생 목적에 부합하는 구상과 행보만이 성사에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98년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65, 59

卯 39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51년생 철저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63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 없다. 75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이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 87년생 장소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99년생 과감한 판단이 감성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05, 52

辰 40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 아니다. 52년생 무리 없이 잠재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4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 76년생 누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88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00년생 진정한 자신이 리 행성이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5, 60

巳 41년생 빚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도 끼어들지 못하리라. 53년생 모순점이 보이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5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77년생 비슷한 것과 똑 같은 것은 다르다. 89년생 시거나 내용을 잊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자. 01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2, 75

午 42년생 제3자의 관점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라. 54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겠다. 66년생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78년생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이다. 90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이 해소 된다. 02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91

未 43년생 물질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55년생 마음속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투명하게 의사 표시하라. 67년생 불행하면 시급히 개선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하리라. 91년생 과도하다면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03년생 서로가 피장파장이니 의미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3, 70

申 32년생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44년생 마음에 걸리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할 때이다. 56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68년생 돈은 보이나 잘 되지 않아서 문제이다. 80년생 필연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다. 92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0, 64

酉 33년생 부작주의 원인이 해소 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 된다. 45년생 연계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57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69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81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93년생 반드시 근거를 남겨 두자. 행운의 숫자 : 47, 59

戌 34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46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 되면 발전의 열 것이다. 58년생 양자의 중간에서 처세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서게 된다. 70년생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운들이 보인다. 82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충분하다. 94년생 일단 성사시키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3, 94

亥 35년생 길모듬은 별로지만 실상은 양호할 것이다. 47년생 근거가 확실하다면 실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59년생 굳이 표하지 않아도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71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라라. 83년생 판세가 이처럼 흘러갈게 된 것 역시, 다 이유가 있느니라. 95년생 지속 가능한 설계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3, 77